다산포럼

노인 의료 문제 근본적인 개선방안 나와야 할 때

황 상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평균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등 대표적인 건강지표로 살펴본 오늘날 한국인의 건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1950~60년대에 우리에게 의료를 지원했던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미국과 비교하면 모든 건강지표에서 앞선다.

유엔 인구국의 예측에 의하면 2040년대에는 한국이 일본조차 제치고 평균수명(88세), 영아사망률(1.0명) 등 대부분의 건강지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최장수국, 건강 모범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외적인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영양 상태의 개선, 위생시설의 확충, 교육 수준의 향상, 효과적인 현대 의술의 발달과 보급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 한국인의 건강 수준이 비교할 국가나 사례가 없을 정도로 증진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을 제외하고 건강 선진국들은 대체로 2차대전 이후부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의료의 공급과 소비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몇십 년 뒤늦은 1989년부터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기도 늦었지만 아직까지도 의료의 공급과 소비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 국가에 의한 의료 공급은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이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사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압도한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은 한마디로 국민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이다.

건강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이룬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의료수가를 억제해 온 것 정도를 국가의 역할로 꼽을 수 있을지. 하지만 그마저도 변하고 있다.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의료 소비와 건강 수준의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요컨대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의료의 공급 측면을 보자면, 공공 병상 수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감소해 왔다. 2012년 현재 총 병상 수는 1949년에 비해 무려 78배가 되었지만, 그 사이 공공 병상 수 비중은 75%에서 12%로 크게 떨어졌다. 사실상 공공 병상, 나아가 공공 의료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건의료비 지출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다. 전체 보건의료비 중 정부 부담률은 55%로 북유럽 국가들(82~85%)이나 일본(82%)보다 크게 낮으며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며,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 수준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한국인의 평균적인 건강 상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의 의료공공성은 공급과 소비 측면 모두 선진국 가운데 최악이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40년대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상회해서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 최장수국이 된다는 것은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국은 65세 이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다. OECD 평균 12.6%의 거의 4배에 달하는 48.6%나 되며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급증과 높은 빈곤율, 게다가 열악한 의료공공성까지 겹쳐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까지는 주로 국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건강 면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의료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의 개선을 모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감염병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의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급히 극복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장수(長壽)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춘 톡·톡

또 다른 대학생활, 국가근로

남 영 은
송원대 재활보건관리학과 12학번

아침 9시! 또래 학생들은 강의실이다, 동아리다, 교정을 뛰어다니느라 바쁠 시간이다. 그런데 나는 대학본부 사무실로 간다. 이곳에서 국가근로 학생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4년째다. 입학할 때 학과 교수님 소개로 국가근로를 처음 알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버렸다.

'주경야독(晝耕夜讀)'이 아니라 주근야독(晝勤夜讀)하는 게 내 삶이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고 있다. 대학이 직장이자 배움터인 셈이다.

많은 학생이 '국가근로'란 말을 생소하게 느낄 것이다.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정된 학업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더불어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8분위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어야 하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매일 온라인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월말에는 수기 출근부를 대학에 제출한다. 그러면 바로 장학금이 나온다. 매번 장학금을 받는 날엔 이것이 직장생활을 하는 맛이겠구나 하고 느낀다. 이날만큼은 기분이 너무 좋아 하루 종일 싱글벙글 미소 지으며 보낸다. 더군다나 근무부서가 '학생복지상담처'라 더 좋다. 학생복지상담처에서 하는 일은 나처럼 국가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직원 선생님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일을 배우는 것도 즐겁지만 다른 즐거움도 많다. 대학에는 나 이외에도 많은 국가근로 장학생들이 있다. 그들과 오래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 야간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대학생들과 만나 인맥을 쌓는 기회를 얻었다. 물론, 같은 근로학생 처지이다 보니 때로는 마찰이 생기는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간혹 있는 일이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봉사 아닌 봉사를 할 수 있어서도 좋다. 특히나 어려운 친구들이 덕분에 편안하고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기쁨과 보람이 크다.

사무실이다 보니 근무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사무실 자체가 배움터인 셈이다. 업무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짬짬이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아마도 학교만 다녔으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지냈을 것이다. 금쪽같은 시간을 소중히 사용한 결과로 국가근로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적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국가근로'는 한마디로 1석2조가 아니라 1석5조의 성과를 안겨주었다.

4년의 국가근로가 내게 안겨준 가장 소중한 열매는 '자신감'이다. 삼포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보니 졸업을 앞둔 모든 대학생들이 취업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더 크다. 국가근로 기간 동안 만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어딜 가서든 무슨 일이든 잘할 것이라고 칭찬해주신 덕분이라 여겨진다.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다보니 일처리 능력도 생겼고 책임감도 커졌다.

누구나 대학생활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실천에 옮긴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떠나고, 어학연수도 다녀온다. 모든 경험이 그렇듯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국가근로'를 꼭 권하고 싶다. 적지않은 납부금이나 용돈으로 부모님을 걱정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끔은 치킨이나 피자를 쏠 수 있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며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대학생활을 바란다면 꼭 국가근로를 권하고 싶다. '국가근로' 참 좋다. 꼭 도전해보길 바란다.

기 고

'숲 속의 전남'은 미래를 가꾸는 사업

윤 병 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

가로수의 역사는 옛날 일정거리 마다 심은 이정표 나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조상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중에 "십리 절반 오리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방귀 뀌어 뽕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거짓없어 참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라는 노래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타령에서 '십리 절반 오리나무'라고 했듯 옛날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 나무로 오리(五里)마다 심었다고 한다.

우리 가로수에 관한 기록은 고종 32년(1895)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신작로 좌우에 나무를 심도록 한 공문서가 맨 처음이다. 가끔씩 시골을 생각할 때면 포플러와 아카시아나무가 서 있고 자갈이 깔려 있던 신작로가 떠오른다.

필자는 자동차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신작로를 따라 초등학교 4km, 중학교 8km 학교를 다녔다. 5월이면 하얀 아카시아꽃을 한 움큼 따서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지금은 도로를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면서 하나 둘씩 아카시아나무와 포플러 나무를 베어내어 지금은 온데간데 없다. 이태리 포플러는 정부 장려 10대 수종 중 속성수의 대표수종이었다.

1967년 3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이태리 포플러 조림 장려와 조림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라는 지시와 함께 하사금 24만원을 받아 전국 17개소의 하천부지, 유수지 등 유휴지 370ha에 15만본의 조림을 실시하기도했다.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이 대통령 하사 포폴러 장학금이다. 가장 잘 관리한 지자체가 곡성군이다. 하지만 섬진강변과 곡성군 일대 신작로에 심었던 나무는 이제는 찾아 볼 수 없다.

숲속의 전남 민선 6기 브랜드시책으로 가로수와 마을숲 등 올해만 해도 1000만그루 이상 심는다. 현재 세계적으로 3대 수종은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튜립(마로니에)나무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은 'Neighborhood greenspace and health in a large urban center'라는 논문에서 '가로수를 10주 더 심으면 7살 정도 젊어진 것과 같은 인식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숲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숲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생명의 숲을 조성해나아가야 한다. 이 정책의 기조가 민선 6기 이낙연 지사의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다. 지난 8월 21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길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는데, 바야흐로 가로수가, 그리고 숲이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국립환경정보센터(NCEI)는 "2015년 7월 전 지구적 날씨 분석을 통해 올 7월 전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6.6도로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0.8도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관측 이래 138년 만이라 한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 내용이다.

기후변화를 감안하고, 미관상 좋아야하며,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야 한다. 또 잔손이 많이 가지 않아야 하고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가로수의 형태도 점점 도시 경관과 도로의 특성, 주변 건물과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앞으로는 나무의 생리적 현상까지 파악해 심어야 한다. 가로수는 도로 주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매연에 항상 노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생존성이 뛰어나며 정화능력이 탁월한 수종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도시를 상징하는 얼굴이다.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크고 작은 네모난 건물들과 아파트가 우뚝 솟은 도시에서 숲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도심 나무들은 메마른 콘크리트 벽속에서 청량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민선 6기 핵심사업인 '숲속의 전남'은 100년 뒤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추진해야 하는 그야말로 '미래 사업'이다.

社 說

FTA발 농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계기로

포도·밤 등 지역 특산품이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남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발 농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입 장벽이 낮아진 탓에 수익성이 크게 감소해 농가들의 경작 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오는 18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아 전산 입력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지난달까지 지원 신청을 마감키로 했으나 일선 시·군 사정으로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신청 농가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폐업 지원 대상이 한우 한 품목이어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포도·밤 등이 포함됐다. 올해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포도·닭고기·밤 등이며 이 가운데 폐업지원금 대상은 체리·시설포도·노지포도·닭고기·밤 등이다.

전남도의 경우 담양이 주산지인 포도와 광양의 대표적 특산품인 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전남도는 도내 포도 농가(779) 가운데 30~40%, 밤 농가(3196) 가운데 10% 정도가 폐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로서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생산에만 의존하던 시절은 지났다. 안전성·신선도·브랜드와 서비스 경쟁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다. 특히 정보 통신기술과 결합해서 무한한 가치를 재생산해 내는 데까지 발전했다. 결국 농업도 품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첨단기술로 무장한다면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나라에 수출 길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차제에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광주시·전남도 국비 확보 총력전 펼쳐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타 시·도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하고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비 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으로서는 당연한 행보다.

양 시·도는 31일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각각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재경 예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 등 새누리당 예산 관련 핵심 실세들이 대거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676억 원 등 모두 10건에 2932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 역시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2000억 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200억 원 등 모두 20개 지역 현안사업을 요청했다.

특히 도는 이들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대부분 삭감돼 국회에서 추가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는 또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21명과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광주·전남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와 담당자들을 적극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시·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인들도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당적이나 여·야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

無 等 鼓

전승(戰勝) 기념일

1945년 9월 2일 오전 9시. 일본 도쿄만에 정박한 미국 전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승전국인 미국 등 연합군 9개국과 패전한 일본간에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됐다.

먼저 일본 시게미스 마모루 외상과 우메즈 요시지로 육군 참모총장이 문서에 서명했다. 이어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맥아더와 미국 대표 니미츠 제독을 비롯해 중국, 영국, 소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표가 사인을 했다. 소요된 시간은 불과 15분여.

조인식이 끝나자 2000여 대의 B29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전함 상공을 편대 비행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촉발됐던 태평양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1910년 8월 일본에 국권을 빼앗겨 식민지로 전락했던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한반도 주둔 일본군 항복문서 조인은 이보다 일주일 늦은 9월 9일 오후 4시 조선총독부 중앙회의실에서 열렸다. 존 하지 미 중장과 아베 노부유키 총독간 서명이 끝나자 총독부 건물앞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지고 대신 성조기가 게양됐다.

하지만 미주리호나 조선총독부의 항복문서 조인식에 조선 대표는 없었다. 수십년간 많은 애국지사들이 풍찬노숙하며 일제와 투쟁했지만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 주석이나 국내 진공 작전을 눈앞에 뒀던 장준하 선생과 광복군 대원들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듣고서 가슴을 치며 탄식했던 까닭이다.

중국이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대대적인 전승절 행사를 갖는다.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승리 70주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다. 세계 2강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듯 많은 병력과 최첨단 무기 퍼레이드를 선보인다고 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 없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어느 때보다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징비'(懲毖)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kwa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